

2野 정치역량, 호남의 열망 하나로 묶어낼까

뉴스분석

조기에 달아오른 대선정국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입법·예산 국회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선 정국이 조기 가열되고 있다. 당장, 송민순 회고록과 최순실 게이트를 고리로 여야가 내년 대선 주도권을 놓고 연일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정국이 일찍 가열됨에 따라 지역 민심도 점차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 가능성이 여부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여 소아대와 3당 구도 등으로 정국의 유동

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에서 호남 표심의 위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의 현실화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거대 여야 사이에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정면충돌이 이어지면서 원내 3당으로서의 존재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호남을 상수로 하는 내년 대선의 고차 방정식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과 당내 유력

국민의당, 원내 3당 존재감 없어 안철수 지지율 정체
더민주, "지역적 접근" 거리두기... 호남 목소리 미약
시민들 높은 정치의식 통합·단일화 이끌어 낼지 관심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민주에서도 호남의 목소리는 미약하다. 호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한데다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론'에 대해서는 지역적 접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호남이 주도적으로 야권 통합이나 후보단일화를 압박, 정권 교체에

나서는 것이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과 시대적 과제를 이루는 길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과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호남 정치권의 내부 역량은 아직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지 못했기 때

문이다.

조재선 의원들은 비교적 성실했지만 투지와 역량이 부족했으며 중진들도 정국을 뒤흔들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호남 국회의원들이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등 단일대오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먼저 호남 중진들 사이의 미묘한 불신 구조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진들의 경우, 차기 광역단체장 선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눈총도 받고 있으며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눈치 보기 행보나, 관료주의적 행태를 버

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중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진들이 헌신을 통해 조재선 의원들의 결집을 이끌고 이를 통해 단일대오를 만들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위한 선행 조건은 호남 정치권의 결집"이라며 "내년 대선의 유동성이 큰데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만 결집된다면 충분히 정권 교체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라도 1000년 역사 기념사업 공동 추진

광주·전남·전북, 상생 화합 위한 11개 사업 펼치기로

전라도를 이루는 광주와 전남·전북 3개 시·도가 전라도 천년을 맞아 이곳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북 3개 시도는 19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제10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과 서해안 철도 건설 공동 대응, 호남

권 관광벨트 구축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3개 시도는 특히 오는 2018년 전라도 천년을 대비한 기념사업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전라도 천년 정사 편찬 등 11가지 주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시·도별 상징적 대표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11대 사업으로 ▲전라도 천년 정사 편찬 ▲천년 문화유산 복원 ▲전라도 이미지 개선 홍보물 제작 ▲천년기념 학술대회 및 특별전시회 등을 마련했다.

또 ▲전라도 천년 기념식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지정 ▲기념상품 개발 ▲전라 밀레니엄 파크 조성 ▲천년 랜드마크 조성 ▲백두대간 호남정맥 생태관광 추진 ▲천년 역사 문화관광 활성화 등도 준비 중이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이밖에 그동안 공동대응했던 군산~목포 서해안 철도건설과 시도간 인사교류, 공연예술단 교류,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수서발 고속철 호남·전라선 증편 요구, 서울~제주 고속철 건설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제10회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19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원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의회가 끝난 뒤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당을 둘러 보고 있다.



남광주도가 방음시설 '골머리' ▶6면

숲 속의 전남 '보은의 숲' ▶18면

호랑이 군단 '2017 스타트'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산강 생태복원 하굿둑 개방해야

광주·전남 환경단체 협의체

광주·전남 환경단체 등이 영산강 하구 생태 복원과 하굿둑 개방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하굿둑 개방 실현을 통해 영산강 수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산강 기수(汽水·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수생태 복원협의회는 19일 전남도의회에서 발족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발족식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사업내용도 확정했다.

협의체에는 목포 환경운동 연합,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 남도 에코센터 등 47개 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원협의회는 기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운동,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시민참여 운동 등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부산시 하천 살리기 지원 조례를 모델로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벌여 영산강 하구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 송학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

● 일시 : 2016. 10. 23(일) 08:00~

● 장소 : 모교 운동장

● 전화 : (062)374-6685

대촌중학교
총동문회장 차 희 준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

healingfood.hwasun.go.kr

2016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 도심속
국화향연

Hwasun
Healing Food Festival 2016

10.27(목) ~ 10.30(일) [4일간]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일원

10.27(목) ~ 11.6(일) [11일간]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주최 | 화순군 | 주관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 me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